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4일(한국시간) 터키 트라브존 후세인 아브니 아케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환호하며 골키퍼 이창근에게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8강 리틀 전사, 한국축구 미래 보여줬다

U-20 월드컵 16강 콜롬비아전 혈투 끝 승부차기 8대7 승

빠른역습·압박 수비·투지 빛나… 7일 자정 이라크와 격돌

한국축구가 120분 연장 혈투끝에 승부차기 승리로 4년만에 201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진출의 쾌거를 달성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터키 트라브존의 후세인 아브니 아케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16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1-1로 승부를 내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8-7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2009년 이집트 대회(8강) 이후 4년만에 8강 재진입에 성공하면서 1983년 멕시코 대회(4강) 이후 30년 만에 4강 진출을 노리게 됐다.

◇'리틀 태극전사' 정신력 빛나=한국은 오는 7일 오후 6시(한국시간 7일 자정) 카이세리 카디르 하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라크와의 8강전에서 30년만의 '4강 신화'에 도전한다.

19회를 맞은 U-20 월드컵에서 한국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13차례 본선에 나섰지만 8강 이상 진출한 것은 1983년 멕시코, 1991년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한 포르투칼, 2009년 이집트에 이어 역대 4번째다.

콜롬비아 전은 콜롬비아의 뛰어난 개인기에 맞서 빠른 역습과 끈질긴 협력수비를 펼친 '리틀 태극전사'들의 투지와 정신력이 빛난 경기였다.

김현(성남)이 최전방 원톱 공격수를 맡고 권창훈(수원)이 섀도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4-2-3-1 전술로 콜롬비아와 맞선 한국은 킥오프 시작과 함께 한 박자 빠른 침투 패스를 앞세워 공세를 펼쳤다.

전반 9분 김현의 패스를 받은 강상우(경희대)가 상대 골키퍼와 맞서는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한 한국은 전반 16분 만에 송주훈(건국대)의 결승골이 터지며 승리를 예고했다.

한국은 후반 막판까지 콜롬비아의 공세를 잘 막아내며 승리를 눈앞에 두는듯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콜롬비아의 '왼발 스페셜리스트'인 후안 킨테로(페스카라)에게 프리킥 동점골을 내주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승부차기끝 콜롬비아 격침=연장전 전·후반 30분을 합쳐 승부를 내지 못한 한국은 마침내 피를 말리는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선축을 맡은 한국은 두 번째 키커인 송주훈의 킥이 크로스바를 벗어나며 위기를 맞았지만 골키퍼 이창근이 콜롬비아의 세 번째 키커로 나선 펠리페 아길라르(알리안사 페트롤레라)의 슈팅을 막아내 위기를 넘겼다.

9번째 키커까지 이어진 치열한 승부에서 한국은 마지막 키커인 이광훈(포항)이 골을 성공한 뒤 콜롬비아의 마지막 키커로 나선 데이비 발란타(알리안사 페트롤레라)의 실축이 이어지며 8-7 승부차기 승리로 8강 진출의 기쁨을 맛봤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19(19세 이하) 선수권대회에서 이라크과 두 차례 맞붙어 모두 비겼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한국은 결승에서 이라크를 다시 만나 1-1로 또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힘겹게 승리했다. 불과 9개월 사이에 세 번째 맞붙게 된 상대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어 이번에도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광종 감독은 "한국 축구의 매운맛을 보였다. 콜롬비아는 스피드와 개인기가 뛰어난 팀이지만 우리가 전·후반 90분과 연장전에서 전략적으로 잘 해냈다"면서 "유럽이나 남미 팀과 붙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준비 잘하겠다"며 4강 진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KIA 마무리 해법 없나… 팬들은 답답

선감독은 앤서니 카드 놓고 '고냐 스톱이냐' 아직 고민 중

KIA 타이거즈가 다시 또 마무리 고민에 빠졌다.

마무리 앤서니의 불안한 9회2사가 계속되고 있다. KIA는 지난 주말 앤서니의 4번째 블론세이브와 오심이 겹친 삼성전 역전패로 큰 충격에 빠졌다.

2일 SK전에서 김선빈의 발과 이범호의 힘으로 4연패를 끊으며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지만 3일 다시 9회2사의 악몽이 재현됐다. 3-3으로 맞선 9회 선발 소사가 김강민의 2루타와 함께 교체됐다.

선동열 감독이 선택한 카드는 앤서니였다. 희생번트로 1사 3루, 상대의 스퀴즈 작전 허를 찌르며 3루 주자를 잡아냈지만 볼넷 뒤 조동화의 끝내기 안타가 나왔다.

SK의 결정적인 작전 실패가 나온 만큼 연장전을 노려볼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앤서니의 시즌 3번째 패로 그 기회는 무산됐다.

KIA는 시즌 초 불붙은 방망이로 선두 질주를 했지만 반환점을 돈 현재 5위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다. 불펜 특히 마무리가 KIA를 가장 머리 아프게 하는 주제다. '지키는 야구'를 표방해온 선 감독이지만 불펜의 악순환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선 감독은 올 시즌 선발 앤서니를 마무리로 돌리며 마운드를 재편했다. 김진우를 마무리로 찍었지만 팔꿈치 상태가 좋지 않아 부랴부랴 앤서니에게 마무리 역할을 맡겼다. 프로야구 2년차, 구위, 빠른 퀵모션, 수비 능력이 낙점 이유였다.

하지만 불펜의 총체적인 부진 속에 초보 마무리 앤서니의 한계가 일찍 노출됐다. 선발과 마무리를 이어줄 계투진 부재로 앤서니가 8회부터 등판하며 과부하가 걸렸다. 장점으로 꼽힌 빠른 승부는 오히려 성급한 대결로 귀결되면서 위기의 마무리와 실패가 계속됐다. 4점차 역전패, 5점차 블론세이브까지 마무리계 불명예 역사를 썼다.

선 감독은 송은범을 지난 주중 두산 3연전 대기조에서 제외하면서까지 승리 계투진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송은범의 삼성전 패로 끝나면서 불펜 해법은 미궁에 빠졌다.

마무리가 나오면 오히려 KIA 덕아웃에 긴장감이 도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앤서니의 마무리 카드를 놓고 '고냐 스톱이냐'는 고민은 더해지고 있다.

대체 자원이 마땅치 않다는 게 선 감독의 최종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09년 우승을 지킨 유동훈의 위력이 떨어졌고, 신승현은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가 뚜렷하다. 송은범도 시즌 도중 캠프를 치르다시피 하며 밸런스를 잡아가는 중이다.

그나마 불펜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이는 박지훈 밖에 없다. 선 감독도 박지훈을 더블 마무리로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석민 마무리'론도 나오지만 부상 여파로 윤석민도 불안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양현종의 부상·서재응의 부진·임준섭의 불확실함 등 선발진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앤서니의 선발 전환도 고려되고 있지만 마무리에 초점을 맞춰 시즌을 준비한 만큼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마무리 고민은 '성적이냐 투수 왕국의 재건이냐' 의 고민이기도 하다. KIA는 매년 마무리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아픈 몸으로 고군분투하던 한기주의 가동이 불가능해지면서 매년 집단 마무리, 임시 마무리가 등장하고 있다. 손 놓고 있던 구단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마운드의 선동열 효과로 똑같은 고민이 다시 또 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한편 4일 비로 한숨을 돌린 KIA는 윤석민을 선발로 내세워 5일 안방에서 롯데 송승준과의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빛고을 전사' 광주FC 3위 도약 할까

내일 홈서 충주험멜과 K리그 챌린지 맞대결

'빛고을 전사'들이 충주전 첫 승을 겨냥한다.

광주 FC가 오는 6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충주험멜을 상대로 K리그 챌린지 16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

3위 도약을 위한 승부이자 정규리그에서 1무1패를 기록하고 있는 충주를 상대로 한 첫 승 도전이다.

잘 나가던 광주의 기세는 지난 라운드 상주와의 경기에서 1-2를 패를 당하면서 주춤해졌다. 전반 7분 만에 실점을 기록하는 등 먼저 두 골을 내주며 수비 집중력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여범규 감독은 상주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쓰리백을 들고 나왔지만 수비 숫자가 많아지며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 주고 말았다. 이번 충주전을 앞두고 광주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앞선 패배에도 광주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실점 뒤 곧바로 추격 골을 성공시키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규리그 승은 없지만 광주는 5월 FA컵에서 충주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대역전극을 연출한 적이 있다.

김은선-정경호가 축이 된 중원에서의 조율과 공격 전개도 좋고, 측면에서의 빠른 공수전환은 광주의 전력으로 자리 잡아하고 잇다.

상주전에서 골결정력 부족으로 땅을 쳤지만 날카로운 골감각을 자랑하는 김호남이 경고누적으로 인한 휴식을 끝내고 충주전을 준비하고 있다.

리그 최하위의 충주는 팀 전력이 그리 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자신들만의 확실한 축구 스타일을 가졌다. 선수 개개인의 체격조건과 파워는 떨어져도 숏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 양 측면에서 보여주는 날카로운 스위칭 플레이와 컷백은 광주에게 적잖이 까다롭다.

광주는 그동안 수비진들의 우월한 신장과 파워에도 충주의 빠른 전개에 여러 차례 문제점을 노출했다.

충주는 최근 성적 부진을 이유로 이재철 감독이 경질되면서 휘청거렸지만 민동성 감독대행의 빠른 혼란 수습으로 지난 주말 부천전에서 3-0 완승을 거뒀다.

광주가 과연 충주와의 세 번째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